



연예계 소문난 '절친'이 스크린에서 정면 대결한다. 배우 정우성과 이정재가 각각 주연으로 나선 영화 '강철비2:정상회담'(왼쪽)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29일과 8월5일 개봉하면서 이들의 흥행 경쟁에 시선이 쏠린다.

'대통령' 정우성 vs '추격자' 이정재

'강철비2' 정우성, 南 대통령 변신 '다만' 이정재, 고난도 액션 소화 일주일 간격 개봉...선외의 경쟁

오랜 동료이자 동갑친구이고 매니저먼트사 아티스트컴퍼니를 함께 이끄는 파트너인 배우 정우성과 이정재가 1년여 만에 스크린에서 리턴매치를 벌인다. 각자의 주연영화가 같은 시기 개봉하면서 흥행 맞대결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2월 극장에서 펼친 선외의 경쟁을 1년 만에 재연하게 된 셈이다.

정우성이 29일 영화 '강철비2:정상회

담'(감독 양우석·제작 스튜디오메이우스우정)을 내놓는 데 이어 이정재도 8월5일 주연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감독 흥원찬·제작 하이브미디어코프)로 관객을 찾는다. 연중 관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인 '7월·8초(7월 말~8월 초)'에 일주일 차이로 주연영화를 공개하면서 빅매치를 예고하고 있다.

두 배우의 일주일 시간차 흥행 대결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정우성의 '증인'과 이정재의 '사바하'가 일주일 간격으로 개봉해 평가를 받았다. 당시에도 대결 구도도 시선을 붙잡았지만 오랜 연기 활동으로 쌓은 작품을 보는 선구안과 새로운 장르 도전, 캐릭터 해석과 표현력

을 나란히 과시하면서 각각 253만, 239만 관객 동원에 성공했다. 작품 완성도 측면에서도 호평을 이끌어냈다.

이번 여름에 내놓는 영화를 통해서도 정우성과 이정재는 모험과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베테랑의 면모를 과시한다. 그간 보인 적 없는 새로운 얼굴로 관객을 맞이하는 것도 공통점이다.

정우성은 '강철비2: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끄는 대통령 역을 소화한다. 영화는 남북미 정상이 회담 도중 북한 쿠데타 세력에 의해 핵잠수함에 납치되는 이야기. 무거운 책임감으로 나선 정우성은 "국제정세 속 한반도를 냉정하고 차갑게 바라보는 작품"이라며 "관

객들에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소개했다.

이정재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고난도 리얼 액션을 펼친다. 태극과 일본을 무대로 암살자와 추격자의 대결을 그린 영화에서 이정재는 형제를 죽임으로 문 킬러를 뒤흔치는 무자비한 인물을 연기한다. 5개월의 촬영기간에 혹독한 자기관리와 액션 훈련에 몰두해 상대역인 황정민까지 놀라게 했을 정도다. 이정재는 "촬영감독, 무술감독과 함께 아이디어를 쏟아내면서 최대의 기술력을 집약해 모든 장면이 다른 스타일로 보이도록 연구했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gofi1024@donga.com

권력형 성폭력 고발 영화... '밤샐'이 심상찮다

폭스뉴스 회장 성폭력 고발한 실화 개봉 6일만에 10만 관객 돌파 호평

영화 '밤샐:세상을 바꾼 폭탄선언'의 기세가 심상찮다. 최근 잇단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상황과도 맞물리면서 관객의 가파른 지지세를 얻고 있다.

8일 개봉한 '밤샐:세상을 바꾼 폭탄선언'(밤샐)이 개봉 6일 만인 13일 누적 10만여 관객(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넘어섰다. 14일 현재까지 10만8000여명이 관람하며 한국영화 '#살아있다'에 이어 박스오피스 2위에 영화를 올려놓았다.

'밤샐'은 미국 방송사인 폭스뉴스를 배경으로 회장의 성폭력을 용기 있게 고발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부당한 현실에 맞서는 여성들의 고통과 연대를 담았다.

관련 내용은 최근 일부 정치인 등 '힘 있는 자'들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과 의혹이 불거진 국내 상황을 떠올리게 하면서 시의적 이야기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관객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연대의 힘"(j8****), "모든 척하고 침묵할수록 결국 내



영화 '밤샐: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말, 내 친구, 나로 다시 돌아온다'(ms****), "권력과 맞서 싸우는 멋진 여성들의 이야기"(gr****) 등 호평 속에 높은 평점을 안기고 있다.

제이 로치 감독 연출로 샤를리즈 테론, 니콜 키드먼, 마고 로비가 주연한 영화는 2017년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접화한 '미투(Me Too)' 운동보다 1년 앞섰던 사건을 다뤘다. 'BUT NOT THE LAST', '이것이 시작이었다'는 의미의 자막이 보이는 이에 더욱 무겁고 큰 의미를 안겨주고 있는 이 관객수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김일우·공효진... '예능 늦깎이' 들 맹활약

김일우 '살림남2' 반전 모습 눈길 공효진 '바퀴집' '나혼산' 등 출연

예능프로그램에서 쉽게 만날 수 없었던 '늦깎이'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신선함과 반전의 매력으로 시청자 시선을 집중시키며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출연 중인 김일우가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11일 방송분에서 자신의 57회 생일을 축하하는 류태호, 방은희, 윤예희 등 동료들과 함께 일상을 공개해 프로그램 최고 시청률인 10.2%(닐슨코리아)를 견인해냈다.

2017년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예능프로그램을 좋아하니 많이 불러달라"며 너스레를 떨었던 그는 그동안 중후한 분위기로 안방극장에서 연기를 펼쳐왔다. 이제 자신의 말을 실천하듯 예능프로그램에서 의외의 끼를 발휘하며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tvN '바퀴 달린 집'의 김희원과 공효진 역시 눈길을 모은다. 조립식 주택을 차에 싣고 여행하는 프로그램에서 김희원은 성동일, 여진구와 공동 주인 격이고 공효진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김일우

은 손님이다.

이들은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자연과 사람, 인생에 관한 이야기로 시청자 시선을 끌었다. 스크린을 통해 개성 강한 연기와 매력을 뽐내온 두 사람의 모습에 적지 않은 시청자가 위안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공효진은 '바퀴 달린 집'뿐 아니라 최근 MBC '나 혼자 산다', tvN '삼시세끼 여촌편 5' 등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며 솔직한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다.

방송가 인파에서는 "개그맨 등 늦깎이 출연진과 게스트들이 무대를 채우고, 포맷도 엇비슷한 예능프로그램의 흐름 안에서 이들의 활약은 더욱 신선하게 다가온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윤여수 기자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신현준·김서형

전 매니저 갈등 신현준 '슈돌' 하차 김서형, 소속사 전속계약 해지 요구 계속되는 폭로전에 대중들 피로 UP

배우 신현준이 13년간 일한 전 매니저와 별이는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가운데 김서형도 소속사 대표와 전속계약 해지 분쟁을 시작했다. 이에 감정이 더해져 폭로전으로까지 번지면서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신현준은 소속사 전 대표이자 매니저였던 김모씨가 9일 자신으로부터 부당한 처우와 임금, 폭언에 시달렸다고 폭로한 이후 연일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씨는 2010년 신현준의 프로포폴 과다 투약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기까지 했다. 신현준도 법적 대응을 공표하며 감정싸움이 뒤섞인 장기전을 예고했다.

논란 속에서 신현준은 12일 두 아들과 K

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슈돌) 출연을 강행했지만 여론은 악화했다. 결국 그는 단 1회 출연을 끝으로 '슈돌'에서 하차한다. 신현준은 15일 소속사 HJ필름을 통해 "가족에게 돌아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제작진에 양해를 구하고 출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씨와 별이는 갈등의 후폭풍이다.

김서형은 지난해 10월 신생 매니저먼트사 마디피쳐스와 계약을 맺었지만, 전모 대표와 "신뢰가 깨졌다"고 밝히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자신에 대한 '협박·비방을 제3자에게 하는 등 행위로 더는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 대표는 15일 "배우가 신뢰 문제를 거론하지만 그럴 만한 사안은 전혀 없다"며 "현재 변호사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갈등 국면 탓에 이들이 참여한 작품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슈돌' 제작진은 신현준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지만, 당장 19일 방송부터 빨간불이 켜졌다. 김서형은 드라마 '아무도 모른다' 속 활약을 영화 '여고괴담 리부트:모교'로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법적 공방 잡음에 휘말렸다.

이혜리 기자 gofi1024@donga.com

연예뉴스 HOT 5

구혜선·안재현 이젠 남남...이혼 절차 끝

연기자 구혜선(36)과 안재현(33)이 결국 이혼했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5일 이들의 이혼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이혼 조정은 부부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두 사람은 이날 조정에 합의했다. 안재현이 지난해 9월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낸 지 10개월 만이다. 두 사람은 2015년 KBS 2TV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인연을 맺고 이듬해 5월 결혼했다. 하지만 지난해 관계가 악화해 파장에 이르렀다. 안재현 측은 "두 사람이 각자 길을 걸으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우 구교환·이옥섭 감독, 7년째 교제 중



이옥섭(왼쪽)·구교환

배우 구교환(38)과 이옥섭 감독(33)이 7년째 교제 중인 사실이 15일 알려졌다. 독립영화 '메기'의 주연배우이자 연출자인 이들은 앞서 '4학년 보경이' '오늘 영화' '연애다큐' '걸스 온탑' 등 여러 편의 독립영화를 함께 작업해왔다. 감독으로도 활동하는 구교환은 지난해 문소리·이주영과 호흡하고 '메기'의 주연으로, 각본을 쓰고 프로듀서까지 맡았다. 두 사람은 최근 유튜브에 '2X9'라는 이름의 채널을 개설해 다양한 영상작업도 함께하고 있다. 구교환은 15일 개봉한 영화 '반도'에서 폐허의 땅에서 무대를 이끄는 서대위 역을 맡아 활약했다.

FNC엔터, SF9 다원 학폭 가해 의혹 부인

아이돌 그룹 SF9의 멤버 다원(이상혁)이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주장에 소속사가 부인했다. FNC엔터테인먼트는 15일 "온라인 게시판에 제기된 (학폭)주장은 확인 결과 다원과 학교를 함께 다닌 인물로 보이지만, 일방적이고 왜곡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SNS에는 과거 다원으로부터 초·중학교를 다니며 괴롭힘을 당했다는 한 누리꾼 글이 게재됐다. 한편 다원은 최근 신곡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 발매를 기념해 유튜브에 공개한 릴레이 댄스영상에서 무성의하게 춤을 추는 팬들의 지적을 받고 SNS를 통해 사과했다.

블랙핑크, 2주 연속 빌보드 핫100 올라



블랙핑크

결그룹 블랙핑크가 '하우 유 라이크 댓'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 2주째 이름을 올렸다. 15일(한국 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6월26일 선보인 '하우 유 라이크 댓'이 빌보드 '핫100'에서 91위를 기록했다. 앞서 11일 '핫 100'에 국내 걸그룹 최고 순위인 33위로 진입했다. 동시에 영국 오피셜 차트의 싱글 차트인 '톱 100'에도 2주 연속 들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하우 유 라이크 댓' 스페셜 에디션을 17일 발매한다.

송혜교, LA 대한민국민회에 韓 안내서 기증



송혜교

배우 송혜교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미국 LA의 대한민국민회에 한국어와 영어 안내서 1만부를 또 기증했다. 서 교수가 15일 "전 세계의 독립운동 유적지에 새로운 안내서를 제작해 기증하는 일도 좋지만, 끊임없이 꾸준히 채워 넣는 일은 더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송혜교의 기증 사실을 알렸다. 송혜교는 9년 동안 서 교수와 손잡고 전 세계 독립운동 유적지 22곳에 한국어 안내서와 한글 간판, 독립운동가 부조 작품 등을 기증해왔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